



중국 국제해운시장 상승세 견인 장기화

지난해 홍콩 포함 컨테이너량 8,300만TEU

중국의 왕성한 대외무역이 전세계 해운업의 상승주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지난해 컨테이너처리량은 8천300만TEU로, 전 세계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은 “운송산업, 특히 해운업의 상승주기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개월간 항생지수 상승률이 10%에 그친데 비해, 홍콩상장 운송회사 및 항만운영업체의 주가는 40-62%의 급등세를 보였다.

중국본토 최대의 해운회사인 COSCO그룹은 터미널 임대회사인 COSCO퍼시픽내 지분과 자사의 컨테이너해운사업부를 통합시켜 6월중 홍콩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최고 20억달러를 조달한다는 목표다.

또한 상하이, 샤먼, 다롄에서 항만을 운영하는 국유업체들도 총 2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홍콩 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노트랜스의 해운자회사 및 항만건설업체인 차이나하버 역시 상장을 모색 중이다.

막대한 투자로 인한 중국 항만의 과대공급 우려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전세계적 경기둔화 및 미국 서부연안과 유럽의 화물정체 가능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한편, COSCO그룹의 신생 해운 자회사인 '차이나 COSCO홀딩스'가 6월말 홍콩 기업공개(IPO)를 실시한다고 더스탠다드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는 UBS와 HSBC가 주관을 맡을 것이라고 했으나 양사 모두 이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COSCO퍼시픽은 지난 달 발표한 공시를 통해 차이나COSCO홀딩스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으며 모회사인 COSCO그룹이 차이나COSCO홀딩스에 해운자산 전체를 투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COSCO퍼시픽은 COSCO홀딩스 상장에 자사가 별도로 추진 중인 IPO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그룹 내 컨테이너 임대, 터미널, 물류 계열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컨테이너 항만, 적체 없을 듯 항만시설 지속적 확장으로 수용 가능

북미와 유럽항 수출이 더욱 증가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증가중인 컨테이너 항만들은 더 이상 적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Long Beach항의 Hong Kong 대표가 말했으며,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자국내 기반 시설의 제약보다 북미항만의 적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LA항과 LB항은 인터모달 철도 네트워크 및 노동력 부족으로 선박들이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며 다른 북미서안 항만들도 100척 이상의 선박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우회함에 따라 이따금씩 적체돼왔다.

반면, 중국 항만들은 작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20~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적체를 겪었으며, 이는 앞으로 컨테이너 처리량이 더욱 증가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세워놓은 항만확장 계획을 통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